복지법인 가족사랑 후원기관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방울 5,000원)

佛敎新聞

불기 2557년 11월 13일(2013년 / 당기 4346년 중력 10월 11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61호

대우투어 daeseungtour
성일교 불자의 해외 여행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회 발행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

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자승스님은 한국불교의 조계종단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약속한다. 이날 법회에는 스님과 자기불자, 천태계 인사를 비롯해 만장 이룬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총무원장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영원한 제3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8월 조계사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이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취임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자성과 쇄신과, 교구중심제 등 새로운 종단운영 시스템 도입, 조계사 성역화 불사와 한국불교의 대승적 가치 구현을 통해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줄 영어가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성 쇄신 결사에 "지난 시기 불교를 유지 존립시키는 것만으로 힘겨웠기에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중생의 삶, 시대의 삶을 마주 보고 함께 보듬을 수 있는 한국불교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출가 수행자와 불자들은 대승의 가치를 실제 구현해야 하며"라며 "조계종 종헌종법 등에는 이런 시대에 소명을 알맞게 실행하고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취임사에는 진제 종정예하를 비롯해 스님과 각계 대표, 신도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자승스님의 34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종정예하는 법어에서 취임축하 인사와 함께 "불교는 화쟁이 근본이니, 평등수행인 자승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이념(理)과 사(事)가, 승(僧)과 속(俗)이 원융화합을 이루어 종경백는 한국불교가 되고, 선종을 크게 드날려 안으로는 남북통일을 이루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화목을 성취하여"고 설했다.

자성과 쇄신결사 '지속' 교구중심제 등 제도변화

세상 아픔 치유할 종단 희망의 등불 되길 '서원'

원로의장 법운스님은 "현실에 맞는 승가종단 제정을 통한 승풍 진작, 무량한 사찰증여를 통한 신도회복, 승가복지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제안과제로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종 문제부 임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에서 "지난 4년간 자승스님은 원융무애종 지혜로 불교 화합과 우리 사회 통합을 이끌었다"며 "그동안 쌓아 오신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화합과 새 시대를 여는 상생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사회적 공공성 실현 및 자비나눔을 통해 이전을 뛰는 감독 중 왕생자동차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나온 무병과정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인권이 탄압받고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MOU 체결을 통해 전자동 아시안하공원 조성을 함께 해 나갈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우리나라 역사와 사민을 보듬어주고 자비나눔을 실현한 불교계에 경의를 표한다"며 "종교계 현신적 보살펴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힘이다. 부처님 자비를 고루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웃풋교회 대표회 축사한 김희중 주교님이 광주대교구 교구장은 "여러은 김을 걸으실 자승스님에게 며칠라니라 수행의 도반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제의 마음을 선물도 드리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한국불교와 천태의 미래 희망을 만들려는 총무원장 스님의 뜻이 제주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라며 "이같은 위기를 기회 삼아 종단운영 관심 속에서 제주불교가 여람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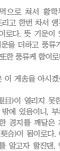
기획실장 일감스님도 "총무원장 스님은 관음사 주지와 신도회, 종단 등 3개 협력기 되기 장까지는 어떤 계획도 없었지만 오늘 오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소통과 대화로 보면서로 아니라 관음사와 제주불교 전체의 발전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관음사=김라현 기자

총무원장 취임 경하하노니 종단화합 종풍선양할지어다

■ 진제 종정예하 법어



一事事圓圓觀觀
一語語顯顯露露
有意氣時添意氣
不風流處也風流.

한 주먹으로 쳐서 쾅악무를 거꾸러뜨리고 한번 쳐서 생무주를 뒤집어다오. 또 기운이 있을 때 또 기운을 다하고 쓰듸가 있는 것에 또한 쓰듸게 함이었다.

대중은 이 게송을 아시겠습니까?

안목(眼目)이 열리지 못한 이는 한심 박에 있음이니, 부처님의 심오한 경지를 깨닫은 자만이 게송(偈頌)이 읽이로다. 이러한 경지를 알고자 할진데, 일상생활 속에 각자 화두(話頭)를 간절히 챙기고 의심(疑心)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

금일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취임을 경하(慶賀)하노니, 종단의 화합과 종풍선양(宗風宣揚)을 실천할지어다.

본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풍은 임제종 기풍을 잇고 있음이라, 불조의 정법안고(正法眼)이 임제선사에 이르러 크게 흥함으로 인해 오늘에 선풍이 있음이니, 모든 종도(宗徒)는 한당의 임제의 여러조사(臨濟諸祖)와 부루 인제선사의 기풍을 넘어 드날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3면에 계속

불기 2557년 11월 8일

탐라에서 한국불교 희망을 보다

관음사포교당 이전문제로 인한 갈등
화쟁·회통으로 사찰-신도 마음 모아

지역불교의 갈등을 종단이 적극 중재하고 해결해라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도포교당의 보광사와 이전 문제로 사찰과 신도 사이에 원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음사는 도포동에 위치한 보광사 사찰이 낙후돼 인원이 제기되자 신도시 포교를 위해 신제주 개발지인 노동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이전을 반대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현재 보광사 이전불사는 총무원의 중무행정 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상태다.

화쟁위가 관음사를 방문한 것은 화쟁과 원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화쟁위원장 도법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 제주부장 보광스님 등이 지난달 주선했고, 관음사 관음사 신도회장, 양방규 신도대표위원장 등 양측 대표들이 참석했다.

총무원과 화쟁위는 지난 5일 제주 관음사를 방문했다. 보광사 이전문제로 모인 각 구성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맞절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지를 밝혔다.

회의 초반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주지 성효스님은 "여러이 포교의 원심함을 느껴 새로운 도포포교당 조성을 위해 이전을 계획한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도들이 소송을 제기해 포교당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종교계 현신적 보살펴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힘이다. 부처님 자비를 고루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웃풋교회 대표회 축사한 김희중 주교님이 광주대교구 교구장은 "여러은 김을 걸으실 자승스님에게 며칠라니라 수행의 도반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제의 마음을 선물도 드리

이현정 기자 ecrator@bulgyo.com

법난호, 내년 말까지 10·27 피해자 접수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스님, 이라 법난위원회)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11월11일부터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다.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대상자는 △10-27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27법난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피해자로 인 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대표자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사람의 유족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사람의 유족